

# 現代經濟學의 可能性과 限界

高 承 濟\*

.....〈目 次〉.....	
I. 머리말	進路
II. 現代經濟學危機論의 實像과 虛像	IV. 現代經濟學과 韓國經濟의 生態分析
III. 世界經濟體制의 分裂과 現代經濟學의	V. 맺음말

## I. 머 리 말

내가 中山伊知郎博士의 推薦을 받아 經濟學振興會(會長 高田保馬教授)의 翻譯叢書의 하나로 린달(E. Lindahl) 教授의 『貨幣 및 資本理論의 研究』(*Studies in the Theory of Money and Capital*, 1939)를 翻譯한 것이 1943年 2月の 일이었다. 때는 마침 2次大戰이 마무리되는 무렵이었던 탓으로 나의 原稿를 組版하던 實業之日本社의 印刷工場이 美軍機의 爆擊을 맞아 불타버리고 말았다. 지금도 哀惜한 일로 생각한다. 어쨌든 이 翻譯事業은 나의 經濟學者로서의 始發點이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이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35年間을 經濟學者로 살아왔다. 긴 歲月이 아닐지 모르나 짧은 歲月은 아닌 것이다. 서울大學校 經濟研究所가 나에게 現代經濟學에 대한 所見을 말할 것을 要請한 것도 理論經濟學에서 出發하여 韓國經濟社會의 歷史的 研究를 일삼고 있는 35年間의 經濟學者生活을 살아온 사람이 現代經濟學에 대하여 어떠한 所感을 품고 있는가를 打診하고 싶은 好奇心의 發露인 것으로 스스로 풀이하고 있다.

나는 理論經濟學의 現役兵이 아니다. 오히려 現代經濟學의 動態를 먼곳으로부터 觀察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立場에 있는 내가 現代經濟學의 現狀과 進路를 말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하여도 冒險스러운 일임에 틀림이 없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現代經濟學의 可能性과 限界」라는 論題를 걸고 現代經濟學에 대한 所見을 말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經濟社會에 대한 總體的인 認識이야말로 現代經濟學이 지니고 있는 限界의 壁을 뚫는 길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

\* 學術院 會員

## II. 現代經濟學危機論의 實像과 虛像

1960年代의 後半에 접어들면서부터 現代經濟學이 無能하다는 批判의 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60年代의 初葉부터 活氣있게 展開되어 왔던 後進國開發理論이 그 分析對象을 政治·社會·文化의 側面으로 擴大하는 課業에 成功을 거두게 됨에 따라서 現代經濟學은 마치 市場現象만을 分析對象으로 삼는 狹小한 學問이라는 批判을 받게 되었다. 後進國開發理論이 資本形成論에서 發進하였던 만큼 現代經濟學이 後進國開發理論의 展開過程에 있어 指導的인 學問으로 役割하였던 것은 누구나 否定할 道理가 없는 儼然한 事實이 었던 것이다. 그러나 政治學·社會學 등의 여러 社會科學分野의 學者들이 後進國開發理論의 展開過程에 깊숙히 進入함에 따라서 現代經濟學의 立場은 孤立的인 것으로 轉落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만약 後進國開發理論의 展開過程에서 現代經濟學이 끝까지 指導的인 學問의 立場을 固守하면서 그 分析對象을 政治·社會·文化의 側面으로 擴大하였다면 無能한 學問이라는 批判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믿는다.

그러면 어찌하여 經濟學者들은 社會科學의 立場에서 政治·社會·文化의 側面으로 그 分析對象을 擴大하는 일을 躊躇하게 되었는가, 이미 經濟學自體가 歷史·理論·政策으로 細分化된 나머지 어느 經濟學者이든 現代經濟學을 總體的으로 代辯하는 立場에 설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풀이하여 볼 수 밖에 없다.

한편 社會科學의 다른 分科學問들은 經濟的 側面으로 그 研究對象을 擴大시킴으로써 새로운 體系의 樹立에 成功을 거두게 되었다. 社會學의 경우만을 보더라도 社會構造를 經濟·政治·文化 등 3大構造의 複合體로 定立하는 일에 成功을 거둔 나머지 現代社會의 生態를 分析하는 일에 前例없는 有用성을 發揮할 수가 있게 되었다.

또한 社會心理學의 立場에서 現代經濟學의 理論構成에 있어 核心에 가까운 比重을 차지하는 消費者行爲를 多面的으로 調査·集計하는 研究成果를 發表함으로써 現代經濟學이 捕捉하지 못하였던 側面을 補完하고 있다는 事實도 널리 알려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經濟學以外的 社會科學分野들이 經濟的 側面을 研究對象으로 삼는 새로운 風潮가 進展됨에 따라서 經濟學者들이 오히려 產業社會의 生理와 病理를 解明함에 있어 社會學의 研究成果를 援用하는 事態마저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면 現代經濟學이 政治·社會·文化 등의 側面을 다루지 않았다는 事實을 批判의 對象으로 삼는 理由는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어찌하여 過去 200年間に 걸쳐서 經濟學은 政

治·社會·文化 등의 側面을 다루지 않았음에도 不拘하고 儼然히 學問의 權威를 維持할 수가 있었음에도 不拘하고 오늘날에 이르러 갑자기 政治·社會·文化의 側面들을 研究對象으로 삼지 않았다 하여 無能한 學問이라는 批判의 소리를 듣게 되었는가.

여기에서 提起한 問題點을 解明하기 위하여서는 經濟史學의 立場에서 資本主義社會의 歷史的 變遷像을 檢討하는 바가 있어야 할 것이다. 經濟史學의 立場에서 近代와 現代를 어떻게 區分할 수가 있을 것인가. 近代資本主義社會는 經濟的 價値만을 유난히 重視하고 餘他的 政治·社會·文化的 價値를 輕視하여 왔다. 그러나 2次大戰을 고비로 하는 現代資本主義社會에 이르러서는 經濟的 價値 밑에서 抑壓되어 왔던 政治·社會·文化的 價値가 經濟的 價値에 比等한 地位를 차지하려는 復權運動을 벌이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現代資本主義社會가 이와 같은 特殊한 歷史的 位置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現代經濟學이 政治·社會·文化의 側面을 分析對象으로 삼지 않았다는 事實을 批判하는 소리가 높아지게 되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한편 現代經濟學이 政治·社會·文化의 側面을 分析對象으로 삼지 않았던 것은 近代資本主義社會의 原則的인 價値觀때문이었다. 이러한 資本主義社會의 變遷像에 대한 責任있는 省察이 없이 政治·社會·文化의 側面을 研究對象으로 삼지 않았다는 事實만을 꼬집어 쇠망치로 두드리는 듯이 批判하는 것은 오히려 어리석은 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環境破壞·産業公害·都市問題·土地問題·人間性喪失 등의 問題를 解明하고 對應策을 講究함에 있어 經濟學以外的 社會科學分野의 學者들이 폭넓은 發言權을 차지하고 있으며 經濟學者들이 守勢에 물리는 現實에 눈을 가리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經濟學이 社會科學이라는 基本命題를 다시 생각하여 보는 바가 있어야 하겠다. 經濟學이 社會科學인만큼 「科學」의 立場을 拋棄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科學」으로 完成되는 일에 專念할 必要는 없는 것으로 믿는다. 「科學」으로 完成되기에 焦燥한 나머지 現代經濟學의 理論構成이 普遍主義에 置重하여 왔던 事實은 率直히 反省하는 바가 있어야 할 것이다. 가령 貨幣와 같은 生産關係財나 勞動力·土地와 같은 任意不可增財 같은 것까지도 一般財와 같은 것으로 分析하는 事例는, 普遍主義에 置重한 研究態度的 表示로 보게 되는 것이다.

어찌하여 普遍主義的인 理論構成을 批判하게 되는가. 簡單히 말하여 普遍主義에 흐르게 되면 어떠한 經濟學者라도 社會現象을 보는 눈(眼)을 가질 수 없는 危險에 부딪히게 되기 때문이다. 現代經濟學이 政治·社會·文化的 側面을 研究對象으로 삼게 되는 길이란 무엇

인가. 여러가지 方法論이 提起될 수가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經濟學者들이 經濟社會의 歷史的 變遷像을 省察하는 能力을 갖추고 社會現象을 보는 눈을 갖추게 되는 것이 前提的인 課題가 되는 것으로 믿는 바이다.

### III. 世界經濟體制的 分裂과 現代經濟學的 進路

1973年末에 OPEC(石油輸出機構) 諸國이 原油價大幅引上에 成功을 거두자 開發途上國들은 1次產品의 價格引上을 主軸으로 하는 「新國際經濟秩序」를 先進諸國에 要求하게 되었다. 이런 事態는 先進工業諸國의 產業과 經濟를 威脅할 뿐만 아니라 先進諸國의 經濟發展을 理論적으로 뒷받침하여 왔던 現代經濟學에 대한 挑戰인 것으로 보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하여 突然히 現代經濟學的 無用論을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게 되었다.

開發途上國이 提唱하는 「新國際經濟秩序」라는 것이 「單純한 願望의 羅列」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는 經濟學者가 적지 않다. 두말할 것도 없이 開發途上諸國이 提唱하는 「新國際經濟秩序」속에 經濟哲學이나 有効한 理論體系가 들어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1次產品의 價格安定이 實現되었다 하여 開發途上諸國의 經濟發展이 반드시 뒤따를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무엇보다도 60年代에 베풀어졌던 經濟援助가 開發途上國의 經濟發展을 軌道에 올려 놓을 수가 없었다는 事實을 回想하여 본다면 누구나 1次產品의 價格安定이 經濟發展을 가져올 수 있는 有効한 실마리로 役割할 것에 틀림없는 것으로 보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事實과 現代經濟學이 果然 有効한 學問으로 남아 있을 수가 있느냐. 없느냐의 問題는 完全한 別個의 問題인 것이다. 아담 스미드에서 케인즈를 거쳐 왔던 現代經濟學이 開發途上諸國이라는 第3世界를 어쩔 수 없이 視野속에 넣지 않을 수 없게 된 現段階에 이르러 前例없는 試鍊에 부딪히게 되었다는 것은 매우 分명한 事實인 것이다. 現代經濟學은 生産의 問題는 이미 解決된 것으로 前提하고 市場現象의 分析에 注力하고 있다는 事實은 이미 앞에서 指摘한 바가 있다. 그런데 資源難時代를 맞이하고 있는 오늘날에 이르러 果然 生産의 問題가 解決된 것으로 믿는 現代經濟學的 「信仰」을 옳은 것으로 볼 수가 있는가. 再生不可能한 自然資源(石油)을 消費하는 前提에서 이룩되고 있는 生産을 果然 解決된 問題로 볼 수가 있겠는가. 지난 8月 29日부터 9月 3日까지 開催되었던 第3次 國際經濟學會會議은 「資源問題와 經濟成長」을 主題로 하는 會議였음에도 不拘하고 生産問題를 이미 解決된 것으로 믿는 現代經濟學的 「信仰」에 대한 批判論이 提起되지 않았다는 事實은 奇異한 現象이라는 느낌을 갖게 되었다. 資源問題를 論議하는 學者들이 產油諸國의 原油

價引上이 代替燃料의 開發을 促進할 것이며 石油燃料의 枯渴이 原子力發電으로 代置될 것이라는 樂觀論을 품고있었다는 事實이야말로 生産의 問題를 이미 解決된 것으로 믿는 現代經濟學의 「信仰」을 批判하지 않는 姿勢의 表現으로 보게 되었던 것이다.

生産의 問題를 이미 解決된 것으로 믿는 「信仰」 때문에 現代經濟學은 無用한 學問이 되고 말았다는 批判을 어떻게 克服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美國이 맞이고 있는 現實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에너지多消費型 生産・技術體系야말로 美國社會의 危機를 象徵하는 것으로 보는 見解가 提起되고 있다. 現代美國社會의 危機가 에너지多消費型 生産・技術體系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理由는 무엇인가. 環境破壞의 問題를 解決하는 方法은 에너지供給의 節減이다.

그런데 에너지供給을 節減하면 大量失業現象이 發生한다. 한가지 解決策에 贊同하면 반드시 다른 解決策에 反對하지 않을 수 없는 結果가 나타나고마는 것이므로 政策이 停滯될 수 밖에 없으니 混亂과 憂鬱한 氣分에 잠길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事例를 세삼스럽게 引用하여 본 것은 美國社會의 危機論이 生産의 問題가 이미 解決된 것으로 믿는 現代經濟學의 「信仰」을 뒤엎는 重大한 警鍾이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이다.

現代經濟學의 理論的 背骨이 均衡理論인 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 事實이다. 한 나라의 經濟現象을 두루 살펴면서 貯蓄・投資・雇傭등의 注目할만한 集計量들을 戰略的 變數로 보고 이들 變數의 相關關係로서 經濟現象을 理解하는 것이 均衡理論이다.

그런데 現代經濟學이 均衡理論에 理論構成의 土臺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失業・獨寡占・所得分配의 不均等性등 動態의인 不均衡狀態에 관한 問題들을 解明할 수 있는 能力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批判이 提起되고 있다. 이와 같은 批判을 現代經濟學에 대한 內在的인 批判, 또는 方法論的인 批判으로 볼 수가 있다.

그렇다면 現代經濟學이 인플레이션・失業・獨寡占 등의 問題를 理論的으로 分析하고 解決의 政策方向을 提示하는 能力을 갖추지 못한 것이 果然 研究方法의 缺陷때문인 것으로 斷定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이미 先進工業諸國들은 1960年代부터 經濟成長에 따르는 産業構造의 變貌가 大企業과 勞動組合의 行爲에 새로운 衝擊을 메풀어 온 나머지 賃金・價格의 硬直化現象을 나타내게 되었다. 그리하여 코스트 인플레이션의 體質을 加重시켜 오던 先進工業諸國의 經濟社會는 原油價大幅引上이라는 外部世界의 變貌에서 빚어진 새로운 衝擊을 받게 되었다.

資本主義社會의 內部的 變貌에 따르는 코스트 인플레이션現象과 世界經濟體制의 分裂에 따르는 外部的 變貌가 複合되어 인플레이션・失業・獨寡占 등의 難問題를 빚어냈던만큼 現

代經濟學의 方法論이 그릇된 것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失業·獨寡占 등의 難問題를 解明하는 能力을 갖추지 못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더구나 1970年代에 접어들어 世界經濟體制가 分裂되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體制로 轉換하는 길을 아직도 發見하지 못하고 있는 過渡期的인 混亂때문에 先進工業諸國이나 開發途上國이나 할 것 없이 인플레이션·失業·獨寡占 등의 難問題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다.

現代經濟學의 頂點을 이루는 케인즈理論에 缺陷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造成할 經濟構造가 허물어진 것에 그 原因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市場機構가 낡아빠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機能하는 座標軸이 存立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事實에 問題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現代經濟學이 인플레이션·失業·獨寡占 등의 難問題들을 解明하는 能力을 갖추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世界經濟가 하나의 活動體로서 機能할 수가 있는 國際的 環境의 造成이 先行되어야 할 줄로 믿는다.

#### IV. 現代經濟學과 韓國經濟의 生態分析

아담 스미드의 『國富論』이 刊行된 것이 1776年の 일이었다.

産業革命의 技術의 原動力으로 評價할 수가 있는 蒸氣力이 發見된 해로부터 겨우 10年後의 일이었으나 아직 動力織機는 出現되지 않았다. 하물며 近代의 大規模工業은 世界의 어느나라에도 定着되지 않았던 時期였음에도 不拘하고 『國富論』에는 近代工業의 特性和 工業化가 農村社會에 미치는 主眼點이 생생하게 表現되고 있다. 아담스미드에 의하여 發露되었던 經濟學의 洞察力에 다시금 놀라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1970年代의 韓國社會는 經濟學者들에게 있어 有効한 研究對象이 되는 것으로 믿는다. 韓國의 經濟社會는 先進工業國圈과 開發途上國圈의 中間地點에 位置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世界經濟로 부터 影響을 받는 立場과 世界經濟에 影響을 미치는 立場의 中間地點에 位置하고 있기 때문에 韓國의 經濟學者뿐만 아니라 海外諸國의 經濟學者들에게 있어서도 有効한 研究對象이 되는 것으로 믿는 바이다.

韓國經濟를 研究對象으로 하면서 現代經濟學의 새로운 進路를 찾는 課業을 成就한다는 것은 꿈같은 이야기가 아닐 것이다. 現代經濟學의 主人公은 어디까지나 經濟學者들인 것이다. 그들이 現代經濟學뿐만 아니라 現代資本主義社會와 世界經濟에 대하여 어떠한 問題意識을 품고 어떠한 姿勢를 갖추느냐가 現代經濟學의 限界를 克服하는 先行課題인 것으로 믿는다. 아담 스미드가 發露하였던 洞察力을 土臺로 하여 現代經濟學이 總體的인 經濟過程을

分析하는 能力을 갖추는 使命感에 불타는 바 없이는 現代經濟學에 대한 經濟學者들의 反省이 이루어 질 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새삼스럽게 해로드教授의 말이 머리에 떠오른다. 그것은 「概念의 끊임없는 更新」이라는 말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經濟學者의 끊임없는 自己革新을 強調하는 말이다. 經濟社會의 變遷像을 省察하고 社會現象을 보는 正確한 눈을 마련할 수만 있게 된다면 現代經濟學의 限界를 克服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樂觀하고 싶은 것이다.

## V. 맺 음 말

現代經濟學이 現代經濟社會가 맞이하고 있는 山積한 諸問題들에 대하여 有効適切한 對策을 提供할 수가 없는 것이 事實인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만이 現代經濟學에 대한 不信感의 源泉은 아닐 것이다. 가령 地球物理學이 地震에 대한 有効適切한 對策을 提供하지 못하고 있으며 醫學이 癌에 대한 有効適切한 對策을 發見하지 못하고 있는 事例들을 아울러 생각하여 볼 必要도 있을 것이다. 經濟學뿐만 아니라 科學에 대한 不信感이 發生하는 原因은 學問이 密敎的 性格을 지닌 탓으로 보지 않을 수가 없다. 學問의 密敎的 性格이란 무엇인가. 單純한 論理를 複雜하고 어려운 用語로 粉飾하든가 古典의 秘義的 解釋에 沒頭한 나머지 學問과 社會의 有機的인 關係나 理論과 政策의 實踐的인 關係를 意識적으로 絶斷하기 때문에 學問에 대한 不信感이 發生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바이다.